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가) 사람을 믿는 것과 사실을 믿는 것은 사뭇 다른 일이다. 다음 주에 있을 과제 발표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같은 반 친구 유진이가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당신이 유진이가 과제를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주변 친구들을 기꺼이 도와주었던 유진이의 평소 행동 등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일 수 있다. 반면 과제를 도와줄 것이란 사실과 관련하여 당신이 유진이라는 사람을 믿는 것은 그와의 개인적 관계에 기반한다. 설령 유진이와 친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유진이가 과제를 도와줄 것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당신이 유진이를 믿는 것은 그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 태도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믿음’을 사실에 대한 믿음에, ‘신뢰’를 사람에 대한 믿음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당신이 유진이가 과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과 유진이가 과제를 도와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나) 믿음의 기반과 신뢰의 기반의 차이는 믿었던 바가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와 신뢰했던 바가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를 만든다. 오후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 실망스럽거나 짜증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날씨 예측과 관련해 더 많은 증거를 찾거나 다른 종류의 증거를 찾기도 할 것이다. 반면,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친구가 결백을 호소하여 그가 결백하다고 신뢰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우리가 느끼는 바는 단지 실망스러움이나 짜증이기보다는 배신감이다.

(다) 여행을 하다가 낯선 도시에 들어 식당을 찾아갈 때,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길을 묻고 그가 일러 주는 방향으로 간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아는 바가 없고, 그가 잘 알지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답했다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엉뚱한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이가 말해 준 방향대로 길을 간다.

(라) 사람들이 서로를 잘 신뢰하는 사회에서는 타인의 말을 쉽게 믿어 버리고 타인의 말에 더 쉽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이 팽배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거짓이 배제되고 참이 증진되는 건강한 사회로 유지된다.

[문제 1] (가)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의 상황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문제 2] (가), (나)를 바탕으로, (라)의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활용 모집단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사회복지학과 제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
문항해설	[문제 1] 이 문항은 (다)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그리고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을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믿음과 신뢰의 구별에서 실마리를 찾아 제시해 볼 것을 기대하는 문항이다. [문제 2] 이 문항은 신뢰의 본성에 대한 특징을 고려하여 신뢰 사회가 거짓이 배제되고 참이 증진되는 건강한 사회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즉 남을 속여 거짓을 양산하는 ‘이탈자’를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추론해 볼 것을 기대하는 문항이다. (여기서, (가), (나)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신뢰의 본성으로는 신뢰 관계의 사회적·윤리적 본성과 신뢰 형성에서의 증거 제약성이 있다. 이 중 어느 것을 바탕으로 답해도 좋다. 아래 예시 답안에는 두 측면 각각을 기반으로 작성한 두 개의 예시가 있다.)
출제의도	[문제 1] (가)에서 설명하는 믿음과 신뢰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력, 이해력, 응용력을 평가한다. [문제 2] (가), (나)를 통해 얻게 된 신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의 신뢰 사회가 유지되는 과정, 즉 거짓이 배제되고 참이 증진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출제근거	[개념] 사람에 대한 믿음, 사실에 대한 믿음, 신뢰, 믿음, 배신감, 사회적 제재, 개인과 사회의 윤리 [출처]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자료출처

[교과서]

김동환 외, 《국어》, (주)교학사, 128-141, 209-261쪽
고형진 외, 《국어》, 동아출판, 172-207, 266-293쪽
류수열 외, 《국어》, 금성출판사, 164-183, 280-311쪽
신유식 외, 《국어》, 미래엔, 134-153, 303-331쪽
고형진 외, 《독서》, 동아출판, 42-85, 114-145쪽
박영목 외, 《독서》, 천재교육, 42-73, 100-131쪽
방민호 외, 《독서》, 미래엔, 74-105, 134-173쪽
서혁 외, 《독서》, 신사고, 22-69, 118-143쪽
이삼형 외, 《독서》, 지학사, 54-73, 118-151쪽
한철우 외, 《독서》, 비상교육, 52-79, 118-143쪽
김국현 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10-19, 186-196쪽
정창우 외, 《생활과 윤리》, 미래엔, 12-19, 184-193쪽
정택준 외, 《생활과 윤리》, 지학사, 12-20, 182-191쪽
차우규 외, 《생활과 윤리》, 금성출판사, 11-41, 185-194쪽
류지한 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10-27, 176-185쪽
정창우 외, 《윤리와 사상》, 미래엔, 11-18, 182-190쪽
황인표 외, 《윤리와 사상》, 지학사, 11-18, 185-194쪽

[기타]

리처드 홀튼(Richard Holton), 《Deciding to trust, coming to believ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2, 1994